

텍스트종류 '부음'의 한·독 비교 연구 시론¹⁾

- 텍스트의 통보적 기능과 거시구조의 텍스트유형학적 차이를 중심으로 -

이성만(배재대)

1. 들어가기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일어권과 한국의 일간신문에서 게재된 텍스트종류 '부음(Todesanzeige)'의 텍스트 기능이 텍스트의 거시구조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문화적인 시각, 곧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음'을 텍스트 유형학에 기대어 상호 문화적으로 대비 분석하면서 다음의 문제들에 집중하기로 한다.

- 독일과 한국의 '부음'의 구성 요소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 '부음' 텍스트 안에서 이 구성요소들의 사용 장소
- '부음' 텍스트 안에서 이 구성요소들이 갖는 텍스트 결속 망
- '부음' 텍스트의 텍스트 기능(행위 목표)을 실현하는 언어적 표현들
- 독일과 한국의 '부음'의 텍스트 유형학적인 차이점과 유사점
- '부음' 텍스트는 문화 제약적인 텍스트 종류인가?

대비 분석의 자료로서 신문을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상 신문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한 것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른바 전국 일간지나 폭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지를 선별 대상으로 정하였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10월 15~16일 양일간 독일언어문학연구회와 독일어문학회 공동주최 추계학술대회(장소: 목원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기초로 다듬은 것임. 또한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 "Todeskultur in der Textsorte 'Todesanzeige': Kulturkontrastive Untersuchungen auf Textebene anhand der Versprachlichung der Textfunktion' (KRF-99-○○○○)"의 이론과 실제를 위해 수행된 것임.

독일어권은 독일과 독일어권 스위스의 1992년과 2000년의 일간지에 난 100개의 '부음'이다. 한국은 1999년과 2000년의 전국 일간지에 난 100개의 '부음'이다. 100개의 부음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마더(1990)에 인용된 역사적인 '부음'들의 종류들에 근거하여 독일어권 '부음' 텍스트의 전형에 가까운 종류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1)은 분석에 사용된 신문의 종류들을 제시한 것이다.

(1)	한국	독일	독일어권 스위스
	중앙일보	FAZ	TA
	조선일보	SZ	BAZ
	한겨레신문	RMM	BZ

2. 실용 텍스트 종류와 '부음'

2.1. 부고와 부음: 일상언어적 이해

한국에서는 유교식 상례절차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상례(喪禮)²⁾ 가운데 한 절차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訃告)가 있다. 부고는 원래 호상(護喪)이 친척과 친지에게 보내는 것이었는데, 호상이 없을 경우에만 상주(喪主)가 직접 부고를 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주 또는 상주의 가족이 부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부고의 형식은 사망자의 이름, 사망원인, 사망연월일, 발송일자, 호상 또는 상주의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³⁾

2) 상례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무사히 영(靈)의 세계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의식절차를 갖추으로써 그 영혼을 전송하고 영혼의 음조(陰助)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례는 다른 예(禮)에 비해서 그 변화의 폭이 적어 장기간 지속되고 가장 정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며 사회마다 개념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유교식·불교식·그리스도교식·무속이 혼합된 상례절차가 관행 되어왔으며, 이들 상례는 서로 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유교식 상례이다.(브리태니카 CD 2000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의 설명에 기댐).

지금은 발인일자, 장지(葬地)의 소재, 영결식 날짜 및 장소, 기타 사항(상주·형제·사위·손자 등의 이름)을 명기한다. 또한 한문으로만 쓰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한문 혼용 또는 한글로 쓰기도 한다. 더욱이 매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죽음을 알리는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널리 이용되는 것이 신문의 '부음(訃音)'이다.

두덴 사전에 따르면, '광고Anzeige'는 일상적 언어사용에서는 인쇄된 전달행위, 즉 카드형태나 신문 또는 잡지의 개별 인쇄물을 뜻한다. 후자의 의미에서 'Inserat'와 'Annonce'가 'Anzeige'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내용 면에서 보면, 광고에는 사적, 공적, 공공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구직광고나 전세광고에서 보듯이 광고가 생산자의 관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관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수용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다.

죽음과 관련된 광고는 언어학적인 텍스트 분석에 기대지 않더라도 상이한 내용과 기능에 따라 하위 분류될 수 있다. (2)는 기능·통보적functional-kommunikativ 관점에서 텍스트종류 '부음'을 하위 분류한 것이다.⁴⁾



이 분류에서는 광고의 일차적인 기능만 고려하여 부음을 하위 분류한 것

3) 일반적인 서식은 다음과 같다. 姓名大人某官(無官이면 學生)公以宿患今月某日某時別世專人(書)訃告//某年 某月 某日 護喪 姓名 上(남자), 姓名大夫人某封(無封이면 偏人)某貴某氏宿患今月某日某時別世專人(書)訃告//某年 某月 某日 護喪 姓名 上(여자).(브리태니카 CD 2000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의 설명에 기댐).

4) 이미 1934년에 도비파트(1934/65,182이하)는 광고를 상업광고, 관청광고, 가족광고, 소형광고의 4가지로 나누었다. 우리가 말하는 '부음' 외에 '결혼광고', '출생광고' 등은 가족광고의 무리에 넣고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이다. 그렇지만, 이 말은 각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이 폭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두 번째 층위의 광고들은 가정불화(예, 상속분쟁), 고인에 관한 애도, 회사와 기업 프로필의 찬양 등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은 문화에 따라 독특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2.2. '부음'의 구조와 기능: 언어학적 이해

롤프(1993)는 실용 텍스트 종류와 그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부음'을 '부고'Todesnachricht/Trauerbrief와 더불어 사실인정적 기능admittierende Funktion이 있는 단언적 실용 텍스트assertive Gebrauchstexte에 넣고 있다. 부음, 곧 '사망광고Todesanzeige'와 '애도광고Traueranzeige'의 구분은 본 논문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애도라는 표현의 기능이 위에서 든 '부음' 분류의 전체 유형에 암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어권 부음에서 아주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Wir trauern um ..."은 일차적으로 사망사건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사실인정적 단언화행admittierende Assertiva의 정보 특성을 롤프(1993, 178)는 일차적으로 수신자 중심적인 것으로 보고, 주로 수신자의 필요 지향성을 강조한다. "텍스트 생산자는 수신자가 자기에게 전달될 내용이 무엇 인지를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롤프, 179)

'부음'의 경우에 독자가 관련 인물이나 그 가족의 사회적 주변 환경에 있을 때에만 관심이 있는 사회적인 변화의 전달이나 소식을 문제삼는다. 가족이 언어행위를 하는 당사자, 곧 행위자로서 얼마만큼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지는 개별언어마다 아주 다양하다. "값은 을이 사망했음을 알린다"는 유형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텍스트종류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비 분석에 따르면 연구된 언어문화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가족은 텍스트에서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언어적인 행위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가족의 존재는 거의 끊임없이 감지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은 당사자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부음 텍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거의 독일어권에서만 드물게 나타나는 이른바 '자기광고Selbstanzeige'의 한 유형이다: "*Bin auf die grosse Reise gegangen*" 또는 "*Hiermit verabschiede ich mich vor allen meinen Freunden und Bekannten*".⁵⁾

2.3. 텍스트종류로서 '부음'의 연구 경향

독일에서는 부음이 신문의 가족광고Familienanzeige의 지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지만, 주로 가족광고의 일부로만 연구되어왔다(디어샤우어 1973, 가이셔 1971). 라이스(1977/78), 프리스(1990), 피틀라이넨(1993)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부음을 조명하였지만, 가이셔(1971)와 디어샤우어(1973)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폭스(1969)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거(1978)는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뮐러-칼레야(1987)는 교수법적인 관점에서 부음을 바라보고 있다.

가이셔(1971)는 1968년에서 1969년까지 루르 지방의 2개 일간지에 게재된 374개의 사적인 부음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그는 경구나 잠언, 그리고 신의 상징성과 죽음의 찬양 등에 스며들어있는 삶과 죽음에 관한 끈질긴 견해와 생각을 추적하고 있다. 그의 관심사는 종교 생활을 통해 매개되지 못한 죽음과 사망에 대한 민속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다. 폭스(1969,83~101)에서도 주로 사망 사건과 비교적 자세한 상황을 기술하거나 고쳐 쓰는 고정어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토대가 된 것은 독일의 8개 일간지에서 12일간(1965.5.17~1965.5.28)의 약 1,200개의 부음을 이용하고 있다. 부음의 분석은 현대사회에서 죽음의 상징성에 관한 문화

5) 독일과 핀란드의 부음을 대비한 피틀라이넨(1993), 독일어권 스위스의 신문에 난 '부음'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폰 라게-뮐러(1995), 유럽문화권의 부음을 대비한 에 크라머(1996) 등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자기광고에 관련된 토론은 아래의 6.3절 참조.

비평적인 업적들과 접목되고 있다. 또 다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업적으로는 디어샤우어(1973,223~241)가 있는데, 그는 사망과 사망상태를 기술하는 동사형태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부음에서 사용된 경구들에도 꼼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의 연구는 1970년 1월 1일부터 1970년 9월 30일까지 「Weser-Kurier」지에서 뽑은 10258개의 사적인 부음에 기초하고 있다. 폭스(1969,100)가 죽음의 상징물의 분석을 토대로 “오늘날에는 통일적이면서 견고한 죽음의 상징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풍스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적용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 반면에, 디어샤우어(1973,41)는 죽음을 떨쳐 버리려는 속성을 추적하고 있다.

부음을 민속학적으로 분석한 예거(1978)에서는 사회에서의 죽음에 대한 표상을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죽음 알림과 관련된 동사형 외에 사람(나이와 직업)에 관한 정보, 죽음의 상태에 관한 정보, 특별한 알림이나 경구나 잠언 등의 내용적인 단위들도 분석에 끌어들인다.

이러한 연구업적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언어학적인 접근을 한 것이 라이스(1977/78), 프리스(1990), 피틀라이넨(1993) 그리고 폰 라게-뮐러(1995)이다. 라이스는 텍스트종류 ‘부음’을 발생한 사망사건과 사건결과를 알리는 통보적 기능kommunikative Funktion을 가진 복잡한 서술행위로 본다. 핵심정보와 보충정보(간접정보)를 포함하는 내용구조의 도식을 이용하여 내용요소들과 그 순서를 분석한다. 분석의 중심에는 여러 문화권에서 텍스트종류 ‘부음’에 표준적인 언어 외적 규약과 언어적 규약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라이스는 150개의 독일 부음을 분석하여 인접 유럽국가들(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그리고 이집트)의 부음과 어떤 일치점과 상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프리스(1990)도 독일어권 국가(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부음을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의 부음과 비교한다. 라이스에서 유추하여 먼저 맥락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분석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내용요소를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으로 나누고 요소들의 빈도와 표현 변이형들을 분석한다. 피틀라이넨(1993)은 핀란드와 독일의 ‘부음’의 언어적 자질과 비언어적 자질을 비교·분석한다. 논의의 핵심은 전체구조(통보적-주제적 기능과 인쇄술에 따른 특성에 의해 서로

구분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와 표현방식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일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양국 '부음'의 죽음 알림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토대로 삼은 표현 가능성들을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구분한 점이다. 폰 라게-뵐러(1995)는 행위이론적인 화용론에 기초하여 독일어권 스위스의 '부음'을 분석하여 텍스트유형학적인 자질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음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거의 없다. 선구적인 업적은 박여성(1994)에서 발견된다. 그는 화행론에 기초하여 텍스트종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부음'을 예시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텍스트유형학적인 차이점과 일치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접근방법은 본고의 이론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부음'의 비언어적인 특성 분석

한 텍스트의 일반적인 외형은 특정 텍스트를 한 텍스트종류의 범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식 자질이 텍스트종류를 특성화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텍스트의 외형이 궁극적으로 텍스트종류를 분류하고 기술하는 데 충분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니며, 텍스트종류를 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구성요소라는 뜻이다. 3장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부음' 텍스트가 나타나는 환경과 경계, 규모와 상징이다.

이러한 형식구조 외에도 텍스트종류에 특징적인 행위구조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일은 텍스트종류의 분류뿐 아니라 문화권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와 관련해서 4장에서는 텍스트종류 '부음'의 텍스트 기능 Textillokution, 곧 텍스트의 통보적 기능kommunikative Funktion과 이 텍스트 기능에 독특한 하위행위들을 찾는 작업을 한다.

3.1. 텍스트 환경

독일어권의 경우, 「Die Zeit」지와 「Salzburger Nachrichten」지 등은 부음을 광고부와 일부는 텍스트부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독일 언어권, 예컨대 「FAZ」

에서도 - 특히 부음을 일면이나 다면에 걸쳐서 - ‘장의사/Beerdigungs-institut’라는 주제의 선전광고와 관련해서 가족광고나 상업광고와 뒤섞여있다.

그밖에 ‘Stuttgarter Zeitung’지는 프랑스 일간지(‘Le Figaro’)나 이탈리아 일간지(‘Il Corriere della Sera’)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는 부음이 사적인 시사적 사건의 지면에 광고된다. ‘Stuttgarter Zeitung’지는 관련 지면을 ‘가족란Familienrubrik’이라 부르고 있는데, ‘Le Monde’지나 ‘Le Figaro’지에서 사망소식, 부음Todesnachricht이 발견되는 지면은 “Carnet du jour”이다. 여기에는 결혼광고, 약혼광고, 출생광고와 더불어 작가의 사인회 초대도 함께 나타난다. 추모광고Gedenkanzeige와 고인의 추모미사에의 초대가 같은 지면에 따로 “messes et anni versaies”라는 제목으로 독립된 난으로서 도입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어권과 사뭇 다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전국일간지의 경우, 부음은 거의 ‘사람사람’ 면이나 ‘사회’ 면에서 ‘부음’이란 제목의 난으로서 나타난다. 이 지면에는 부음 외에 인물 관련 뉴스, 인물동정, 상업광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날씨예보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부음이 뉴스체Nachrichtenstil와 전보체Telegrammstil의 두 가지 형태로 편집되어 있다. 그밖에 다른 텍스트부(예, 날씨, 인물동정, 해설기사 등)와 구분하기 위해 검은색의 긴 수평선이 사용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독일어권에서도 발견된다.

3.2. 텍스트 경계

독일어권의 부음은 한국과는 달리, 유사한 관계에 있는 텍스트종류, 예컨대 ‘조위감사Danksagung’, ‘추모광고Gedenkanzeige’ 등에서의 같이 관례적으로 두꺼운 검은색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과 친족관계에 있는 광고의 종류들과 분리되고 있다.⁷⁾

독일어권에서는 검은색 테두리(애도의 외형적인 자질)가 텍스트종류에

7) 테두리의 색깔은 남동부유럽권 국가에서는 고인의 종교적인 종파를 암시한다. 검정, 파랑 또는 진보라 색은 기독교도임을, 녹색은 이슬람교도임을 뜻한다.

전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비언어적 수단은 원칙적으로 '울의 죽음을 알린다/den Tod von XY mitteilen'는 언어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는 검은색으로 테를 두른 성명이 (행위구조에서 보면) 최소로 실현된 부음이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 프랑스, 영국의 신문에서는 부음이 소형광고Kleinanzeige로서 일단(一段) 광고로, 그리고 수평선이나 빈줄을 통해서만 서로 구분시켜 편집되기 때문에, '부음' 난임을 명시해주는 공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BT5 참조).

3.3. 텍스트 규모

부음의 규모는 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자의 특정 입장도 표현될 수 있다(프리스 1990,542). 한국에서는 뉴스체와 전보체의 두 가지 규범적이고 통일적인 부음만 나타나는데, 뉴스체 부음의 규모는 고인의 사회적인 지명도에 따라, 전보체 부음의 규모는 고인 뿐 아니라 유족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어권에서는 부음의 규모가 고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명도와 무관하게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3.4. 상징

독일어권에서는 특유의 비언어적 보충수단으로서 부음의 첫머리에 다양한 상징기호를 사용한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애도와 죽음의 상징이라는 독특한 의미를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을 뜻하기도 한다(마더 1990,30). 십자가의 빈도는 주민의 종교관과 관련시키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십자가는 가톨릭 지역의 부음에서는 거의 언제나 발견되며, 개신교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십자가의 사용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가톨릭 신앙의 고백이 암시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입장이 성경의 문구 선택이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표현을 통하여 개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십자가의 모양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에 따라 항상 동일한 형태의 십자가가 사용되는가 하면, 꺾어진 이삭을 넣은 십자가, 화환이 걸린 십자가,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성서에 따르면 꽃과 꽃망울은 현세의 무상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꽃과 꽃망울은 봄과 희망의 사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생명이나 - 죽음과 직결해서 -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런 십자가 외에 드물기는 하지만 이삭, 장미 같은 특수한 상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⁸⁾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는 십자가와 꺾어진 이삭을 결합시킨 경우이다. 꺾어진 밀은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죽음은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종말로 간주된다. 이런 그림은 그리스도의 부활신앙과 모순된다.

한국 부음과 독일어권 부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은 고인의 사진(초상화)이다. 사진은 성명을 공고히 하고 고인의 인품을 지원한다(마더 1990,31). 굵은 테두리가 쳐진 사진의 사용은 고인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는 뉴스채 부음에서만 사진이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독일어권(특히 독일) 부음에서는 천사의 그림(어린이의 죽음인 경우), 별표(*)와 십자가(†)(출생일과 사망일 표시)가 추가로 사용된다.

4. '부음'의 텍스트 기능과 그 실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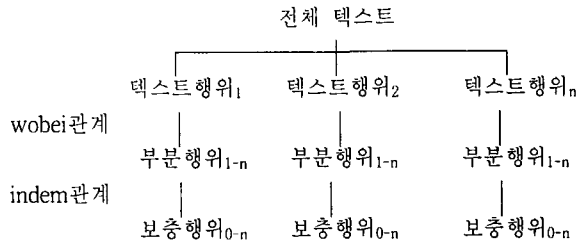
여기서는 텍스트종류 '부음'의 통보적 기능, 곧 텍스트 기능을 밝히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텍스트 기능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⁹⁾ 이미 1장에서 제시하였듯이, 부음은 유형에 따라 일차적으로 '소

8) 이삭이나 밀은 영원히 반복하는 씨앗의 과정, 즉 성장과 수확, 탄생과 죽음, 그리고 환생을 상징한다. 예수는 밀알을 새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한다(요한복음 12장 24절). 장미는 기독교에서 다양한 상징의 의미가 있다. 빨간 장미는 크리스도의 피와 기적을 가리키므로 환생을 상징한다. 또한 죽음을 넘어 영속하는(신의) 사랑을 상징한다(마더 1990,33).

9) 이 논문의 이론적인 토대는 행위이론적인 화용론이다. 이에 근거하면 텍스트는 복잡한 언어적 행위로서, 개별 화행들의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식', '조위', '감사', '추모' 등의 광고들로 분류된다. 다시 이런 유형분류를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부음', '이별', '손실', '애도'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것을 간단히 논의한다. 다음으로 텍스트 기능에 핵심적인 행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부음에 포함된 텍스트 기능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독일어권 부음에서만

보면, 텍스트는 한 텍스트에 포함된 화행들의 계층성과 계기성에 이르는 내부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체 텍스트는 하나의 텍스트 기능을 가진 복합 언어적 행위임이 드러난다. 잔디히(1986)는 화용론적 텍스트분석의 틀에서 계층적인 분석체계를 제안한다. 한 행위가 전체 맥락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 상위나 하위 단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즉, 개별 단계들간의 관계를 계층구조로 설명한다. 잔디히는 “und dann'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텍스트에서 실현된 행위단계들의 선형적인 연속체로서”의 텍스트행위들을 구분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indem'에 의해 하나의 텍스트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하위행위들이 위치한다. 이것은 그 하위행위 H1이 실현됨으로서(도구 관계) 텍스트행위 H가 수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위행위 H1은 텍스트행위 H의 실현 수단이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는 'wobei'에 의해 텍스트행위나 하위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보충행위(주변행위)가 나타난다. 보충행위는 텍스트행위나 하위행위와 함께 동시에 수행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텍스트는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텍스트행위 또는 텍스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행위와 보충행위의 수는 유동적이다. 텍스트의 행위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브링커 1994, 박여성 1994, 이성만 1995도 참조).



텍스트종류 분석의 목표는 텍스트종류에 독특한 모형과 그의 행위구조의 규칙성을 확인하고 기술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발화뿐 아니라 전체로서 부음의 행위내용, 곧 부음의 전체 기능(‘을의 사망 알리기’)을 추론하는 일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밖에도 언어적인 실현을 위한 모형, 곧 행위의 실행방식에도 주목할 것이다.

나타나는 격언이나 경구, 인용 등의 구성요소들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4.1. 범주의 형성

행위이론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는 ‘언어적 행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음’ 텍스트는 ‘울의 사망을 알린다’는 행위의 수행을 위한 관계적인 수단이다. 이런 행위 의도, 곧 텍스트 기능은 한국과 독일어권의 일간지에 난 ‘부음/Todesanzeige’이란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하여 텍스트종류 ‘부음’은 앞에서 논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종류의 광고들과 구분되며, 나아가서 이 텍스트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할 통보적 기능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제목에 따라 텍스트 기능은 ‘울이 죽었음을 알리는 광고’(라이스 1977,46)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은 한국과 독일어권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어권에서는 이런 제목 외에도 ‘이별Abschied’이란 제목이 주로 사용되며, 그밖에도 ‘애도Trauer’, ‘손실Verlust’ 등의 제목들도 발견된다. 이런 용어상의 차이는 고인(사망광고Todesanzeige)과 유족(애도광고Traueranzeige)에 관한 서술에 기인한다(잔디히 1983,96). 전자는 관련자들이 울이 죽었음을 전달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Wir trauern um XY/잡은 울을 애도한다*”이라는 도입부의 전형적인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잔디히는 ‘사망광고’와 ‘애도광고’, 곧 부음과 애도의 범주를 따로 정하기도 한다. 일부 부음에서는 ‘*Wir teilen mit, dass XY gestorben ist/잡은 울이 죽었음을 알린다*’라는 공식으로 시작한다.

그밖에도 전형적인 도입공식에 의하면 두 가지 또 다른 범주들이 발견되는데, ‘이별광고’(=이별)와 ‘손실광고’(=손실)가 그것이다. 이별광고의 범주에서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울과의 이별을 표현한다: “*Wir nehmen (hiermit) Abschied von XY/잡은 (이로써) 울과 이별을 고했다*”. 손실광고의 범주에서는 유족이 도입부에서 예외 없이 “*Wir haben XY verloren/잡은 울을 잃었다*”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서도 간접적으로는 사망 알림이 수행되고는 있지만, 이 광고의 핵심 기능은 인고(忍苦)의 손실 알림에 있다. 따라

서 한 인간이 그의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 구성원의 손실에 관한 유족의 고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손실광고는 애도광고와 이별광고에 비견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고인이 아닌 구성원에 관해 진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사망광고’, 우리가 부음이라 부르는 광고에서 발화의 기능은 실제적인 ‘사망 알림’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족을 통한 언명에 있다. 제목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표시된 텍스트 기능이 전달부¹⁰⁾에서 표명된 기능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별’의 범주에 속하는 BT2와 ‘애도’의 범주에 속하는 BT4에서 보듯이 그렇지 못하다. 죽음 알림이 이런 종류의 광고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어권의 경우에 제목 ‘Todesanzeige’와 ‘부음’은 부음의 텍스트 기능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충분한 지표가 되고 있다.

4.2. ‘부음’에서 텍스트 기능의 유형과 실현

부음에는 실제의 사망사건 알림 외에도 사람, 고인의 인생과 죽음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다. 또한 애도와 고통과 감사의 느낌들이 표현된다. 또한 기도나 생각에 대한 약속과 부탁과 요청, 고인을 위한 소망도 나타난다. 끝으로 유족과 양로원 간호사에 대한 감사도 언급된다. 광고에는 장례식의 일시와 장소, 전달방식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한 요청과 부탁, 유족의 나열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는 날짜와 주소(행위의 시·공간적인 상황화), 텍스트 기능의 명명(제목), 경구나 잠언 첨가(예, BT1, 2a) 등도 있다.

이렇게 많은 행위들을 계층적인 행위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들이 상위의 행위의도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갖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 기능에 중요한 상위 행위들을 모든 행위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일이다.

예컨대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들기, 명시적인 사망 알림(동사)와 고인에 대

10) ‘부음’의 통사적 원형에 대해서는 아래의 6.2절 참조.

한 비교적 자세한 기술은 상위행위인 '사망사건의 알림'에 할당될 수 있다. 추모의 약속, 손실의 애도나 간단한 삶의 기록은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인사치레를 하는 수단이다. 텍스트행위 '경의와 인정'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장례식에 관한 알림(장소, 일시)은 '관계의 형성과 거부'에 이용된다. 관계 형성은 장례와 관련된 정보, 곧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정보가 자세히 전달되는 경우를 뜻하고, 관계 거부는 장례식이 가까운 가족구성원하고만 실시되거나 이미 실시된 경우를 뜻한다. 화환, 기부금, 상복(喪服), 조문(弔問) 등과 관련된 요청과 바람은 수신자의 특정한 행동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지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인에게 조위를 표하거나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행위지침'이라는 텍스트행위에 속한다. 그밖에 느낌 표현, 감사의 표현, 고인을 위한 소망 발언 및 전달 형태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상위행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화행의 계기구조에 기대면 대부분의 이런 행위들과 관련된 것은 부분행위 또는 보충행위들이다. 이들 행위들이 텍스트행위들이 실현될 때 어떻게 동시에 수행되는지는 다음절에서 선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여기서는 텍스트행위들에 주목하여 보겠다. 지금까지의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부음'에 독특한 지배적인 텍스트행위들로 (3)처럼 8가지를 들 수 있다.

(3) 번호	기능 텍스트행위	독일어권	한국	
			뉴스체	전보체
[1]	사망알림	V	V	V
[2]	관계형성/관계거부	V	V	V
[3]	경의와 인정	V	V	
[4]	감사표명	V		
[5]	느낌표현	V	V	
[6]	행위지침	V		
[7]	메타커뮤니케이션	V	V	
[8]	소망과 희망 표현	V		

*설명: 'V' 표시는 각 언어권 부음에서 90% 이상 나타남을 표시함

이러한 8가지 텍스트행위들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보체 부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음은 사망사건의 알림 이상의 것을 겨냥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이런 점은 앞 절에서 제시한 범주 형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유족들의 등장 방식이 주목을 끈다. 독일어권 부음에서는 그들의 느낌, 소망, 부탁, 전달 등을 통하여, 한국 부음에서는 그들의 직함 등을 통하여 전면에서 등장한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부음들은 대개 같은 텍스트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검증을 위해 독일어권의 부음 중에서 ‘이별’ 범주에 속하는 부음을 분석해보자. 예시텍스트 BT2a는 스위스의 부음이고 BT2b는 독일의 부음인데,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먼저 전자의 부음에서는 다음의 텍스트행위들이 확인될 수 있다.¹¹⁾

[1] 사망 알림: “Er hat uns nach längerem Leiden im 75. Altersjahr für immer verlassen.”

[5] 느낌 표현: “traurig”, “Wir gedenken seiner in Liebe und Dankbarkeit”

[2] 관계 형성: “Die Beerdigung findet am Mottwoch, ...”

[6] 행위 지침: “Statt Blumen zu spenden, ...”

여기서 텍스트행위 ‘행위지침’은 행위 ‘*gedenke man des Pflegeheims Bruggen*’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바로 이 ‘행위지침’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행위들, 곧 기부금과 화환과 관련된 지침과 고인을 위한 기도와 추모를 포함하는 부탁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부음은 독일 부음인데, 스위스 부음과는 달리 매우 절제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부음에는 사망 알림, 느낌 표현, 관계 형성 같은 필수적 텍스트행위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행위지침’은 없다.

이제 이런 8가지 텍스트행위들이 독일어권 부음에서 등장하는 빈도와 그 의미를 살펴보자. 앞에서 암시적으로 8가지 텍스트행위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이하게 등장함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텍스트행위들은 부음의 통보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나머지 텍스트행위들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독일어권이나 한국 모두의 부음에서 필수적인 텍스트행위는

11) 일련번호는 위의 도표에 제시된 텍스트행위들을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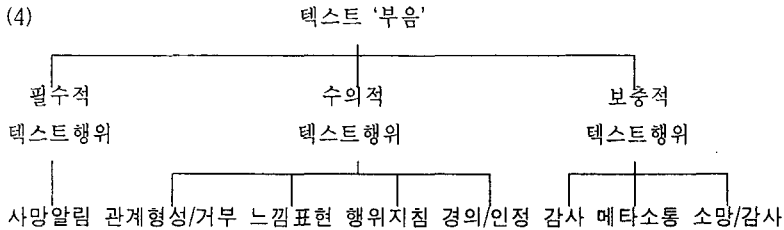
‘사망 알림’이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모든 텍스트행위들은 수의적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만 나타나면 이미 ‘부음’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의 실현형태는 간단히 고인의 성명만 나열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음이 텍스트행위뿐 아니라 부분행위들과 관련해서도 최소로 실현된 경우이다. 관계적으로 부음은 보통 4~5 가지의 텍스트행위들을 포함한다(아래 5장의 논의도 참조).

필수적 텍스트행위인 ‘사망 알림’을 제외한 7가지 수의적인 텍스트행위들은 텍스트종류 ‘부음’에 따라 텍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준다. 폰 라게-뮐러(1996,168)가 862개의 독일어권 스위스 부음을 토대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사망 알림’, ‘관계 형성 및 거부’, ‘느낌 표현’, ‘행위 지침’ 등의 텍스트행위들은 빈도가 50% 이상으로, 나머지 텍스트행위들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텍스트행위들의 빈도에 근거하면 ‘관계 형성 및 거부’, ‘느낌 표현’, ‘행위 지침’ 등의 텍스트행위들은 ‘필수적인’ 수의적 텍스트행위들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독일어권 부음에는 프로토타입에 속한다. ‘조위 감사’나 ‘메타 커뮤니케이션’¹²⁾은 수의적이다. 전체 텍스트의 발화수반행위Illokution, 곧 텍스트 기능에 대한 이들의 의미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텍스트행위들을 보충적 텍스트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에서는 동시에 실제적인 사망 알림을 위해 보충적인 통보적 의도(또는 텍스트행위에 대한 주변행위)가 수행되고 있다.

수의적 텍스트행위와 보충적 텍스트행위를 구분할 때 발생하는 유일한 문제는 텍스트행위 ‘경의와 인정’(고인에 대한 칭찬)이다(예, 고인의 삶: *Ihr Leben war geprägt von Einfachheit, Gottvertrauen und einer grossen Gelassenheit*; 추모 약속: *In unserem Herzen wirst Du weiterleben*; 손

12) 부음의 메타커뮤니케이션Metakommunikation은 전달 방식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 텍스트행위가 가장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광고는 교제광고Kontaktanzeige이다. 폰 라게-뮐러(1990)에 따르면, 독일어권 스위스의 ‘부음’에는 추가로 회람가능성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Es werden keine Leidzirkulare versandt”, “Gilt als Leidzirkular”, “Diese Anzeige gitl als Einladung”. 여기서 말하는 ‘부음’의 회람은 초대 의 기능을 담고 있다.

실 한탄: *Sie hinterlässt eine grosse Lücke, ...*). 독일어권 부음에서 50% 이하의 빈도수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보충적 텍스트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 텍스트행위는 다른 보충적 텍스트행위들과 비교해 보면 부음에서 차지하는 진가는 분명 더 높다. 궁극적으로 고인에 대한 칭찬의 의미도 평가절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의와 인정'을 수의적 텍스트행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간의 관계를 계층구조로 나타내면 (4)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필수적, 수의적 텍스트행위들 중에서 한, 독 양국의 부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예시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필수적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을 구성하는 부분행위들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하겠다. 필수적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은 부분행위들인 '고인 성명 들기',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및 '유족 성명 들기' 등을 통하여 수행된다.¹³⁾ 빈도 면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관계적인 부음의 필수 구성요소들이다. 고인을 지칭하는 방식에서 보면, 독일 부음은 대개 복합성(姓)이 사용되고 있다(예, BT1, BT3). 이것은 고인이 기혼이었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스위스 부음 BT1에서 고인 *Elisabeth Specker-Emmisberger*는 미혼시절의 성이 *Emmisberger*였으며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인 *Specker*가 추가된 성을 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스위스에서는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통용되어 온 것이다. 한국 부음에서는 고인의 성명보다는 '아무개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등의 형태가 애용되고 있다. 부분행위인 '유족 성

13) 라이스(1977)는 이들을 부음의 '핵심정보'에 넣고, 피틀라이넨(1993)은 이들을 부음의 필수 구성성분으로 본다.

명 들기'와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는 한, 독 모든 언어권에서 필수적인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보체 부음에서는 '유족의 성명 들기' 행위는 '고인의 일가친척의 성명과 직함 들기'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권에서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부고장이 아닌 언론을 통한 광고가 여전히 특권층이나 기득권 층의 전유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탁월한 경우에는 BT6에서 보듯이 '아무개의 별세' 식으로 부분행위가 수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상주)이나 일가친척 중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명의로 '아무개(직함)의 부친상' 등의 형태로 부분행위가 수행된다.

BT3에서 부분행위 '성명 들기'는 고인의 친족관계와 나이 그리고 직함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보충되고 있다. 동시에 사망사건(부분행위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이 언어화되어 있어서 죽음의 시점, 장소, 원인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끝으로 유족의 명명은 친족관계와 가족의 주소를 통하여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한 독일어권 부음과는 달리, 한국의 전보체 부음에서는 BT6에서 보듯이 대부분 고인의 나이나 죽음의 원인 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단지 장례장소와 장례일시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만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의 수행에 사용된 부분행위들은 동시에 수행된 '명세화' 보충행위들의 종류와 수에서 서로 구분된다. 부음의 기능은 물론 이런 정보 없이도 충족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보충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부분행위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분행위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는 문장 '*XY ist gestorben*'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밖의 모든 정보들은 보다 정확한 기술(명세화)에 이용되므로 필수적이 아닌 보충적이다. 그러나 '명세화' 보충행위와 관련해서 최소 광고, 곧 명세화가 미미하거나 결여된 부음은 명세화가 많은 부음보다 훨씬 검소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소극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BT1, BT3, BT5에서의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은 BT4나 BT6과는 명세화의 정도에서 구분된다.

명세화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보충행위가 있는데, '평가'가 그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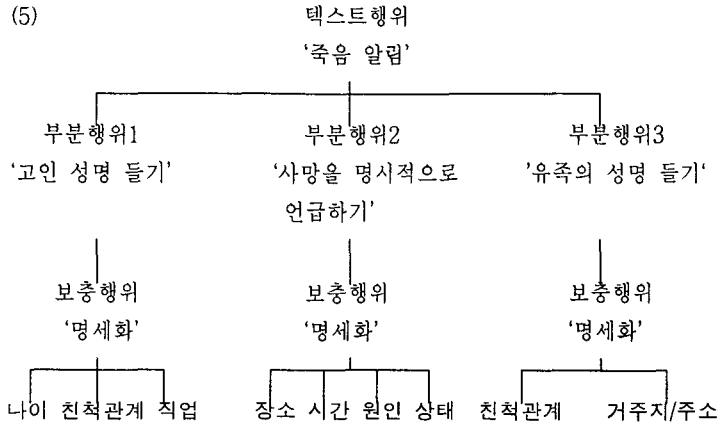
것은 특히 부분행위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völlig überraschend ...”, “... hat uns unerwartet verlassen”,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같은 표현을 통해 죽음이 ‘가족의 떠남’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유족의 시점에서 보면 그 사실을 용인하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nach kurzer, schwerer Krankheit”(BT3), “노환으로”(BT5) 같은 질병의 평가는 사망사건의 긍정적인 평가(죽음=구원(독일 부음에서), 죽음=훈장 추서(한국의 뉴스체 부음에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때때로 고인의 행동이 평가행위로 나타나기도 하다(“wurde nach schwerer, geduldig ertragener Krankheit erlöst”).

끝으로 고인의 친인척관계와 관련된 평가행위가 있다. 독일어권의 부음에서는 흔히 “meinem Sohn, unserem Bruder etc”, “meine geliebte Ehefrau, unsere liebe Mutter”(BT1), “von meinem lieben Ehemann”(BT2b), 한국 부음에서는 “애국지사”(BT5), “아무개의 부친상, 모친상”(BT6)처럼 제3의 입장에서 고인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의 ‘평가’는 텍스트종류 특유의 평가 척도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된 국면들이 특정한 척도로 평가되는 것이다. 누구나 평가행위 시 구체적인 맥락에서 현실화되는 일정 수의 척도를 이용한다. 이 척도는 문화적인 관례와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소통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평가행위는 보통 명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곧 암시적으로 수행된다(잔디히 1978,159이하도 참조). 중요한 것은 부음 텍스트에서 평가행위는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과 부분행위 ‘고인의 성명 들기’,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및 이에 상응하는 명세화 행위와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행위이론적인 토론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필수적 텍스트행위 ‘사망 알림’과 관련된 행위구조(각주 9도 참조)를 계층적으로 제시하면

14) 그밖에도 독일어권 부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경구’나 ‘잠언’의 인용도 죽음을 구원으로 바라보는 평가행위의 수행으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이 부음에서 갖는 통보적 기능 분석은 필자의 또 다른 관련 논문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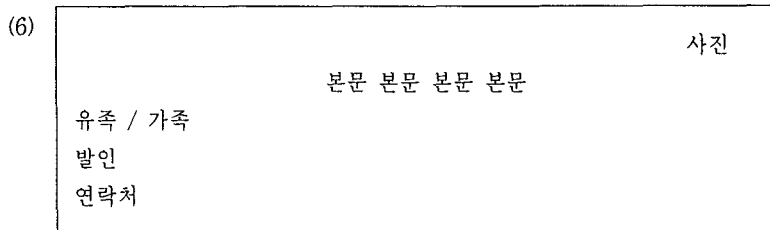
(5)와 같다.



5. 부음의 거시구조적 대비 분석

5.1. 한국 부음의 구성요소

한국 부음의 형식구조는 독일어권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6)은 BT5에 근거하여 뉴스체 부음의 기본 형식구조를 보인 것이다.



한국 부음은 뉴스체 광고와 진보체 광고의 두 종류가 있는데, 독일어권의 그것과는 달리 모두 소형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부음은 신문이라는 거

아무개의 병부상 등의 형태로 암시되면서 직함 제시가 회피되기도 한다. 다른 유럽문화권, 예컨대 미국문화권에서는 사망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수 전달의 기능을 겨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 독자의 능동적인 행동을 전제하는 50%정도가 장례일시(경우에 따라 이미 장례식을 한 다음에 광고를 냄)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가족과 유족의 성명과 직함을 병기하여 제시하고 고인의 장례일시와 연락처가 예외 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전달의 기능을 넘어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부음은 매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망장소, 사망일시, 사망방식이 정확하게 지적되는 텍스트계기를 취한다: '2일 오전 10시쯤 교통사고로, 1일 오후 10시 급환으로, 23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담낭 암으로, 8일 오후 노환으로(BT5)'.

5.2. 독일어권 '부음'의 구성요소

독일어권 부음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형식상 부음 전체는 도입부(경구Spruch/모토Motto, 비언어적 보충물과 제목(표제), [수의적] 날짜/장소 및 주소), 중심부(본문과 고인의 성명, [수의적] 날짜/장소와 유족의 주소와 성명), 종결부(장례식, 기부금에 관한 전달 및 전달 방식에 관한 소망과 메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독일어권 부음의 원형적인 기본구조는 BT1~BT4에 기대면 (8)처럼 요약될 수 있다.

15) 영어권 독자의 관심은 '누가 언제 죽었으며 유족은 누구인가?'라는 기본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 죽음의 정확한 진행과정, 즉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인 결과가 나타났느냐는 것을 아는 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리스(1990), 에크라머(1996) 참조.

16) 6.2절의 통사적 원형 비교도 참조.

(8)	[상징]	[격언]
	[사진]	[수십자가/격언]
		[날짜/주소]
	[경구/모토]	
		[제 목]
		본 문
		고인 성명
	[탄생일과 사망일]/[직업, 처녀 성, 옛 주소]/[우편번호/장소/날짜]/[주소]	
		유족 성명목록(성명, [거주지, 주소])
	[추도주소]/추도식에 관한 전달/꽃, 기부금, 상복 등에 대한 특별한 바램/ 전달방식에 관한 지침	

* [] 안의 요소들은 수의적임을 나타냄

일간지에서 부음의 공간적인 할당은 부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구성된 광고의 극히 다양한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 일간지의 부음이 구직광고Stellenangebote, 주택광고Wohnungsmarkt 또는 교제광고Kontaktanzeige¹⁷⁾의 경우에서처럼 이를 위해 따로 예정된 난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부의 중간에 게재된다는 사실에 따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형태(검정 테두리, 굵은 자체 인쇄, 간격)와 규모(극단적인 경우 DIN-A4로 확대되기도 함)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검정 테두리로 독일어로 작성된 '현대적인' 부음의 70~80%는 종교적인 상징의 효과를 포기하고 있다. 「FAZ」의 극소수의 예에서만 “Statt Karten/카드를 대신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광고 이외에 사망소식을 사적으로 보내지 않을 것임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에크라머 1996,26f.).¹⁸⁾

독일어권 부음에서 거의(표본 조사자료 중 75%이상) 필수적으로 등장하

17) Kontaktanzeige를 '교제광고'로 번역하였으나, '구애광고'로 번역되기도 한다.

18) 「FAZ」의 이런 형태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던 부고가 매체를 이용한 부음, 곧 신문 게재 부음으로 전이되던 과도기에 많이 나타났다. “Statt Karten”이나 “Statt besonderer Anzeige”식 통고는 광고자가 관련 독자 측에게 야기될 수 있는 모욕에 대한 양해를 겨냥한 것이다.

는 구성요소로는 '고인의 성명(이름과 성), 공고 당사자, 가족과 유족, 애도 표현, 사망일자, 장례일자, 광고자의 성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독일어권 부음의 높은 정보력과 개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이 점에서 독일어권 부음은 한국 부음이나 다른 유럽문화권 부음과 비교하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광고 당사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고인의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인의 성명은 표본 조사자료의 64%에서 호칭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고인의 사적인 자료의 경우 직업상의 지위에 관한 정보 외에도 몇 가지 칭호(26%)가 인용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독일어권 스위스 부음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고인이 여성인 경우에만 이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 남성 세계의 절대적인 우위는 회원과 표창의 열거에서도 나타난다(10%). 나이의 경우, 한국이 나이만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고인의 정확한 사망일과 탄생일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⁹⁾

수용자가 고인의 친지나 친구 또는 고인의 가족에 속하면 고인의 장례식이나 영결미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부음은 서면 정보의 원천으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조사된 독일어권 부음의 80%에서 장례식의 장소와 일시가 제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방식 자체는 부음의 60%정도만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매장에서 유래하기 때문인 것 같다(그밖에 약 4% 정도만 화장터/Krematorium, 납골/Urnenbeisetzung과 관련됨).

나아가서 한국 부음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일부 독일어권 부음에서는 사망소식의 중요한 부분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야 일간지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 부분이 사망소식을 기술하는 데 이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 사망광고는 추도사의 기능을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국면 중 하나는 부음에서 유족들이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극히 절제된 한국의 부음과는 달리, 조사된 부음 중 90% 이상에서

19) 한국의 뉴스체 부음에서는 탄생일을 나이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망일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장례문화에 곁들여진 관련 독자에게는 초대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의 하나이다.

애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대개 어휘장 *Trauer, Liebe, Schmerz, Abschied* 같은 요소에 기댐). ‘*unser/e liebe/r*’ 또는 ‘*geliebte/r, gute/r*’ 등에 의한 고인의 호칭을 제외하면, 전달 자체와 심하게 규약화되고 표준화된 애도표현과의 결합이 흔하게 발견된다: *Wir trauern um; In stiller/tiefer/unfassbarer Trauer; traurige Nachricht, Traurig; In Trauer und Dankbarkeit*. 사적인 애도를 증언하는 경우도 있다(*Du fehlst uns so sehr, Mami; wir werden dich nie vergessen, Wir müssen Abschied nehmen, Er war unser Sonnenschein*).

독일어권 부음의 텍스트화가 통사 분야에서 변화의 폭이 특히 크기 때문에(예, 애도표현의 위치, 유족/광고자 성명, 장례 일시와 장소가 일정하지 않음) 원형을 그려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어나 다른 유럽어의 그것과 비교하면 필수적 구성요소뿐 아니라 수의적 구성요소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아래의 6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문화 나름의 텍스트화 유형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기로 한다.

6. 문화 특유의 텍스트화 유형

여기서는 실용 텍스트종류로서 ‘부음’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형들을 합성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텍스트종류의 통사적 원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별 텍스트계기들의 배치를 비교 분석하겠다.

이를 통하여 분명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장한 사회·문화적인 규약들이 이 실용 텍스트종류의 텍스트화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어문화와 언어공동체가 죽음을 달리 주재화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죽음과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이 각 문화마다 편재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음의 텍스트 규약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뀐다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사건들, 예컨대 산업혁명이나 세계대전 및 종교의 변화 등은 이 텍스트종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통시적 분야에서 작용하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이러한 발전의 효과들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6.1. 전형적인 텍스트계기들의 합성

먼저 독일과 한국 부음의 텍스트종류에 중요한 구성요소를 정선해야 하는데, 신문에서 추출한 100개의 부음을 조사하여 70%가 넘는 요소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다. 독일어권 부음의 경우, 고인의 성명, 광고자 성명, 장례식에 관한 설명의 세 가지가 나타난다. 한국 부음에서는 고인의 성명, 유족, 장례식에 관한 성명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독일어권 부음에서는 고인의 완전한 성명 열거가 우세하며, 한국 부음에서는 고인의 완전한 성명 대신 아무개의 부친상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도 흔하다. 전달부 및 광고자부의 이러한 핵심 요소 외에 독일어권과 한국 부음에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의 빈도 수에 따라 비교·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독일어권 부음의 구성요소

독일	구성요소	%	법	례
1	고인 성명	100	(성, 이름)	
2	광고 당사자	100	X gibt bekannt, dass Y gestorben ist.	
3	유족	98	고인의 친지명 또는 숫자 제시	
4	애도표현	94	in tiefer Trauer, die traurige Nachricht, ...	
5	사망 일시	86	gestorben am 4.7. 2000.	
6	장례 일시/장소	80	am Freitag, dem 7.Juli 2000 um 11.00 Uhr in ...	
7	광고자 성명	76	가족(어린이포함), 이름/친척관계 명시	
8	탄생 일시	64	geboren am 29.12.1925	
9	호칭	64	Herr, Frau, Dr., ...	
10	장례 방식	58		
11	연락처	44	주소 제시	
12	모토/격언	40		
13	사망 원인	36	병명 제시	
14	나이	36		
15	직업/직위(직함)	32		
16	약식 추도사	32	업적 등	
17	상징	26	십자가, (사진)	
18	광고 발송일시	26		
19	학위	26		
20	회환 등의 요구	22		

(10) 한국 부음의 구성요소

한국	구성요소	%	법례
1	사망 일시	100	8일 오후 8시 25분
2	장례 일시	100	발인 4일 오전 9시
3	유족 성명	100	강조하여 제시
4	연락처	100	전화번호
5	고인 칭호	100	애국지사/교수(직함), 씨. 옹, ...
6	유족 칭호	100	씨
7	사망 장소	90	...에서
8	광고자 성명		‘아무개의 부친상’ 형태로 100%간접 제시
9	직업/직위(직함)		고인 성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92% 나이는 (1)에서만 100% 제시됨
10	나이		
11	학위		
12	상징(사진)		(1)에서만 100% 제시됨

※ 설명: (1) 뉴스체 부음 광고, (2) 진보체 부음 광고

독일어권 부음에서는 ‘출생지/본적’, ‘참가에 미리 감사하기’ 같은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한국 부음(한국의 인편 부고)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이런 텍스트계기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단서의 역할을 한다.

6.2. 통사적 원형의 비교 분석

지금까지 부음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텍스트계기들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 원형들을 비교하여 거시통사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빈도수에 따라 제시하면, 독일어권 부음은 ‘BP광고 당사자-애도표현-고인 성명-사망 일시-유족/광고자 성명-장례일시/장소’ 등의 6 가지가 핵심 요소들이다. 반면에 한국 부음에서는 ‘사망일시-장례일시-유족-연락처-고인성명-소속기관’ 등의 6 가지가 핵심 요소들이다. 이에 기초하여 부음의 일반적인 구성구조를 정리하면 (11)의 텍스트 구성 모형으로 나타난다.

(11) ㄱ. 독일어권 부음: ‘VN/NN ist gestorben am SD’. IN/AF teilen dies mit. DB.

- ㄴ. 한국 부음: '을'은 '언제'에 죽었다. '광고당사자/유족은 이 사실을 알린다'.
장례일시.

따라서 대부분의 부음들은 통사상 다음의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2) ㄱ. 도입부: 전달부 앞에 오며 실제의 사망 소식을 도입하는 기능이 있다.
ㄴ. 전달부: 실제의 사망 소식을 대개 명확한 사망일자와 함께 전달한다.
ㄷ. 광고자부: 언어행위 당사자인 광고자의 정확한 성명들이 제시된다.
ㄹ. 종결부: 고인의 장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린다(정확한 시점과 장소).

도입부는 대개 *Leben*과 *Ende*, *Vollendung*에 관련된 단어나 서술어를 가진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Ein starkes, erfülltes Leben ist zu Ende gegangen*. 이처럼 사망 알림을 도입하는 기능 외에 *Leben*에 관련된 부가어를 통하여 고인을 평가하는 기능도 있다: *Ein teures Seemanns Herz hat aufgehört zu schlagen*.

사망사건에 관한 핵심정보와 관련 표현들은 전달부 안에서 나타난다. 한국 부음은 BT6에서 보듯이 통사적인 규약이 매우 엄격하다. 반면에 독일 어권에서는 텍스트화 규약이 매우 유동적이고 자유롭다.

전보체로 작성된 부음에서 죽음은 비언어적, 언어적 방식이 모두 이용된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는 십자가(사망일)나 별표(탄생일)가 이용된다. 그러나 출생일과 사망일이 구체적으로 언어화되기도 한다. 텍스트 기능이 명시적으로 이행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mitteilen*, *in Kenntnis setzen*, *(die) Mitteilung machen*, *bekanntgeben*, *Kenntnis geben (von)*, *(die) Nachricht geben*이 그런 예에 속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부음과는 달리 형용사 부가어로 광고자의 평가적 태도가 *schmerzlich*, *traurig* 같은 부가어나 부사구로 명시적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Wir geben die traurige Nachricht, dass..., schmerzerfüllt, in tiefer Trauer*. 독일어권 부음의 또 다른 통사적 특성은 'im Namen + 2격 명사구'나 'für + 4격 명사구'의 형식인데, 유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광고자로 등장할 때 사용된다.

- (13) ㄱ. im Namen der Angehörigen/aller Angehörigen/der Familie/aller Hintergebliebenen/der Familie und Freunde
 ㄴ. für die Angehörigen/für den Freundeskries

또 다른 특성은 ‘씨’, ‘옹’ 등의 호칭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국과는 달리 고인에 대해 존칭 대신 친칭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독일어권 부음에 전형적인 것은 장례에 관한 정보를 담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초청의 의미도 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문화적인 관습에 기대어 사망일시, 빈소, 발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방문을 간접적으로 요청한다.

- (14) ㄱ. Als freundliche Einladung geben wir bekannt, dass ...
 ㄴ. 8일 오후 8시 25분, 빈소는 서울 상계백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6.3. ‘부음’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특성

텍스트종류 ‘부음’은 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부음은 우리 사회나 다른 사회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견해의 상태나 변화가 녹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디어샤우어(1973)가 밝혔듯이 독일어권 부음의 경우에 부음에서 사용되는 경구나 잠언을 통해 신학적으로 신앙의 진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부음의 언어와 구성에서 사회·문화적인 관습의 표지와 수위는 영국의 부음을 분석한 브로니히(1984,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쾨트도이체 차이퉁의 런던 특파원의 1983년 4월 14일 보고에 따르면, 최근의 타임지에는 부음이 거의 48개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면 광고의 1/9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칭호나 업적으로 장식하지 않은 소박한 광고들도 죽음을 삶의 공간에서부터 완전히 추방하려는 영국인 나름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음의 몇 가지 국면들, 예컨대 광고의 구성과 상징, 광고자의 역할, 가장 선호하는 선택 사양들이나 내용 및 죽음 관련 표현들의 다양한 무게중심 등은 문화 특유의 차이가 반영된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가장 흔한 텍스트 계기구조를 통하여 분명해지는

것은 독일어권과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문화권에서 보이는 지배적인 관심사는 당사자들로서 유족들에 있다. 결국 부음이란 매체는 유족들에 의해 자신들의 '자기서술Selbstdarstellung'(잔디히 1986)에도 즐겨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부음에서 고인의 성명이 아닌 유족, 특히 상주의 명의로 인한 '아무개의 부친상' 식의 광고 방식은 이러한 자기서술의 한국식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음은 애도, 고통, 허탈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족들의 유일한 탈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 부음의 또 다른 특징은 가까운 가족구성원뿐 아니라 먼 일가친척·친지들이 반드시 직함을 병기하여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유럽권(예, 이탈리아)에서 이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한국의 부음에서는 부인이나 남편, 자식과 그 가족, 자매 등의 성명이 직함과 함께 나열되고 있는데 반해, 독일어권을 포함한 유럽언어권에서는 이들의 성명이나 성 없이 이름만 나열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애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목록에서나 발견된다.

7. 마무리

본 논문의 목표는 죽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문화적인 시각, 곧 동질성과 이질성을 언어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경험적인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연구업적들을 간단히 살피고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종류 '부음'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다음으로 행위이론적 화용론에 기대어 텍스트 기능 '사망 알림'이 부음 텍스트에서 어떻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선별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텍스트종류 '부음'의 인식과 이해 및 효과에 중요한 비언어적인 자질들을 조명하였다. 이어서 '부음' 텍스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행위들을 찾아내고 그 하위행위들과의 관계를 밝혀 '부음' 텍스트종류 특유의 행위구조와 관계구조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이러한 토론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음'의 거시구조를 통사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부음의 전체구조는 신문과 이와 관련된 언어공간과 문화공간에 좌우된다. 필수적인 전달부, 광고자부, 안내부를 제외하면 모든 거시구조적 구성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독일어권 광고의 (문화 제약적인) 차이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출현빈도와 그의 내용적, 통사적 자질 및 텍스트의 기능에서도 나타난다.

독일어권 부음의 전달부가 전보문체로 작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정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부음의 경우 뉴스체 부음은 이와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부음이 전보체로 작성되어 있다. 독일어권 부음의 또 다른 특성은 특히 전달부에서 유족들의 느낌이나 죽음의 상황이 표현되는 많은 부사구 및 친족 관계나 고인의 직함이나 사회적 업적들이 나열되는 부가어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뉴스체 부음에서도 고인의 직함이나 사회적 업적을 간결한 추도사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언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한 인간의 사망을 기존의 부고 양식에만 기대지 않고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앞으로 신문 같은 언론에 게재된 사망광고 뿐 아니라 라디오나 영상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사망광고를 다양한(종교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등) 시각에서 토론함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상호문화적인 차이와 일치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요한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Brinker, K.(1994).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Bronich, F. W.(1984). Die Sprache der Todesanzeigen. in: *Münchener Medizinische Wochenschrift* 126, Nr.16, 510-514, Nr.17, 557-559, Nr.18, 591-593.

- Dirschauer, K.(1973). *Der todesschwiegene Tod. Theologische Aspekte der kirchlichen Bestattung.* Bremen.
- Dovifat, E.(1934/65). *Zeitungslehre.* Bd.2. Berlin.
- Ekkrammer, E. M.(1996). *Die Todesanzeige als Spiegel kultureller Konventionen.* Bonn.
- Fries, U.(1990). A Contrastive Analysis of German and English Death Notices. in: J. Fisiak(Hg.). *Further Insights into Contrastive Analysis.* Amsterdam, 540-560.
- Fuchs, W.(1969). *Todesbilder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Frankfurt/M.
- Geischer, H. J.(1971). Tod und Leben. in: *Theologia Practica* VI. Jg., 254-271.
- Jäger, M.(1978). *Analyse von Todesanzeigen.* Lizentiatsarbeit. Uni. Zürich. v
on der Lage-Müller,K.(1995). *Text und Tod.* Tübingen.
- Mader, H.(1990). *Es ist echt bitter. Todesanzeigen gesammelt und kommentiert.* Hamburg.
- Müller-Calleja, R.(1987). Todesanzeigen. in: P.Brand et al.(Hg.). *Medienkundliches Handbuch: Die Zeitung.* Bd.3, Braunschweig, 207-220.
- Piitulainen, M. L.(1993). Die Textstruktur der finnischen und deutschsprachigen Todesanzeigen. in: Schröder,H.(Hg.). *Fachtextpragmatik.* Tübingen, 141-186.
- Reiss, K.(1977/78). Textsortenkonventionen. Vergleichende Untersuchung zur Todesanzeige. in: *Le Langage et l'Homme* 35, 46-54 und 36, 60-68.
- Rolf, E.(1993). *Die Funktion der Gebrauchstextsorten.* Berlin.
- Sandig, B.(1978). *Stilistik.* Berlin.
- Sandig, B.(1983). Textsortenbeschreibung unter dem Gesichtspunkt einer linguistischen Pragmatik. in: *Textsorten und literarische Gattungen.* Hrsg. A. Schöne, Berlin, 91-102.
- Sandig, B.(1986). *Stilistik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 박여성(1994). 화행론적 텍스트유형학을 위하여. 텍스트언어학 2, 7-60.
- 이성만(1992a). 통합적 텍스트언어학을 위한 테제. 주시경학보 9, 1-30.

- 이성만(1992b). 통보·기능적 텍스트유형론의 가능성과 문제점. *독어교육* 12, 83-109.
- 이성만(1995b). 텍스트구조의 두 가지 차원. *독일문학* 55, 411-433.
- 이성만(2000). Todeskultur in der koreanischen und deutschen 'Todesanzeige'. *독일어문학* 13, 351-371

Zusammenfassung

Vorbereitende Bemerkungen zur kulturvergleichenden Untersuchung der Textsorte 'Todesanzeige'

Lee, Seong-Man(Paichai Univ.)

Die Arbeit zeigt an, dass die kulturspezifische Textsortenkonvention der Gebrauchstextsorte 'Todesanzeige' im Mittelpunkt steht, wobei anhand von Sprachgemeinschaften vorgegangen wird. Das setzt bestimmte Verständnisse von Text und Textlinguistik einerseits und von Textsorte und Textsortenlinguistik andererseits voraus.

Zuerst versuche ich einen Standort der Todesanzeige im Rahmen der Gebrauchstextsorte zu bestimmen. Danach erstelle ich eine Typologie der Todesanzeige. Die Wahl der klassischen Todesanzeige erlaubt die Konstituierung eines zweisprachigen Korpus, das als Grundlage für die in Kapiteln 4~6 angestellte Paralleltextanalyse dient. Im Mittelpunkt steht dabei die Makrostruktur und die Textfunktion, also die kommunikative Funktion im Text der ausgewählten Anzeigen, deren Einzelteile auf Struktur und Funktion untersucht werden.

Die Gesamtstruktur der Todesanzeigen ist von der Zeitung und dem damit zusammenhängenden Kulturraum abhängig. Außer dem obligatorischen Mitteilungs- und Abschlussteil finden sich in beiden Kulturräumen nicht alle makrostrukturellen Elemente. Kulturbedingte Unter-

schiede zwischen den koreanischen und deutschen Anzeigen gibt es auch in der Vorkommenshäufigkeit einzelner Elemente und in ihren inhaltlichen und syntaktischen Merkmalen sowie in der Handlungsstruktur des Textes. Unterschiede gibt es auch in der Häufigkeit, im Umfang und Inhalt der verschiedenen Elemente sowie in ihrer sprachlichen Formulierung.

텍스트종류 '부음'의 한·독 비교 연구 시론

예시 텍스트(BT)

이성만(배재대)

[1] TA 1992.01.10 범주 'Todesanzeige'

8017 Zürich, den 9. Januar 1992
Vergrabens-Z. 28

Das ist meine Freude
ausgeschlossen zu Gott gelte
ich sehr meine Zuerst
auf dem Herrn
Dr. Z. 28

TODESANZEIGE

Meine geliebte Ehefrau, unsere liebe Mutter, Schwiegermutter, unser Grossmami, unsere Schwester, Schwägerin, Tante und Gotte

Elisabeth Specker-Emmisberger

ist ganz unerwartet im 69. Lebensjahr von uns gegangen. Wir vermissen sie sehr.

In Dankbarkeit:
Joseph Specker
Brigitte und Daniel Müller-Specker
mit Elias
Thomas Specker
Friedy und Fritz Winkler-Emmisberger
Edi und Irma Specker
Erni und Specker
und Freunde

Die Beerdigung findet am Montag, dem 13. Januar 1992 um 15.00 Uhr im Krematorium Sihlfeld statt.
Allfällige Blumenspenden bitte im Krematorium abgeben.

115-109

[2b] 범주 'Abschied' RMM 2000.07.06

In stiller Trauer nehme ich von meinem lieben Ehemann Abschied

Kurt Rogall
geboren am 29. 12. 1925
gestorben am 4. 7. 2000

Erika Buchten
für alle Angehörigen

Hattersheim-Okriftel, Langgasse 3

Die Trauerfeier ist am Freitag, dem 7. Juli 2000 um 11.00 Uhr in der Okrifelder Trauerhalle

[2a] 범주 'Abschied' ST 1992.01.06

TODESANZEIGE

Traurig nehmen wir Abschied von meinem lieben Mann, unserem guten Vater, Grossvater, Urgrossvater und Bruder

Arnold Meyer-Kl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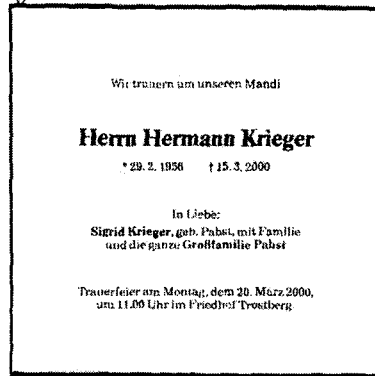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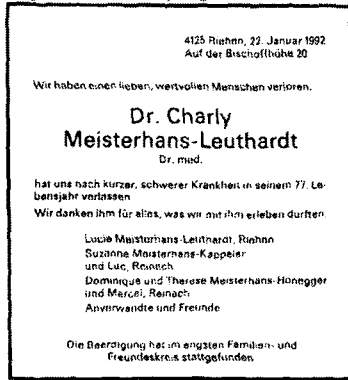
Er hat uns nach längerem Leiden im 75. Altersjahr für immer verlassen.
Wir gedreken seine mit Liebe und Dankbarkeit

In stiller Trauer:
Lilja Meyer-Klaus
Vera und Zoltan Joshi-Meyer mit Kindern
und Ungoskand, Ostermännigen
Brigitte und Hans Grützer-Meyer
mit Kindern, kreuzlingen
Hans-Rudolf Meyer, St. Gallen

St. Gallen, am 9. Januar 1992
Krauzenstrasse 28

Die Beerdigung findet am Mittwoch, dem 8. Januar 1992, im Friedhof Felsli (Krematorium) statt.
Statt Blumen zu spenden, gedreke nan des Pflegeheims Bruggen

[3] BAZ 1992.01.28 범주 'Verlustanzeige' [4] SZ 2000.03.18/19 범주 'Trauer'



[5] 중앙일보 1999.10.11 뉴스체

[6] 중앙일보 1999.10.11 전보체

부 음

독립운동가 최규련옹 별세



광복군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애국지사 최규련(崔奎連)옹이 8일 오후 8시25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84세. 평북 정주출생인 최옹은 자신이 경영하던 운수회사를 차분한 돈 90여만원을 광복군에 헌납했고, 광복군 중국 지남(濟南)·침다오(青島)지구 특파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92년 건국훈장 애족장 수상, 유족으로 미망인 오명숙 여사와 2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상계백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952-5699.

- ▶박명길씨(전 거제수협조합장·서경경 해운 회장)별세, 박춘식(사업)·종식(수협 중앙회장)·홍진(서경해운 대표)·성태(세길수산 대표)·월홍씨(서경해운 이사)부친상, 김사영씨(사업)방부상=7일 오후 9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14 자택서, 발인 13일 오전 10시, 0558-681-0708
- ▶김윤중씨(전 롯데건설 상무)부친상=9일 오후 7시 전남 강진군 작천면 자택서, 발인 12일 오전 10시, 0638-432-6077
- ▶박재혁씨(제일상선 과장)부친상, 한경태(한국아쿠르트 홍보이사)·최성진(대창유통 이사)·한원희씨(신세계건설 기획실장)방부상=9일 오후 9시(빈소 서울 양천구 목동성당 영안실), 발인 11일 오전 9시, 2645-6648
- ▶문용주씨(11대 국회의원·대한민국헌정회 이사)모친상, 조태석씨(관우회 부회장)방모상=9일 낮 12시 수원아주대병원서, 발인 12일 오전 9시, 0331-216-1742